

우적가의 주체와 타자

신재홍(경원대)

1. 서론
2. 타자에 대한 세속의 논리 -비보와 유지
3. 타자에 대한 초월의 논리-<우적가>
4. 결론

1. 서론

주체와 타자의 문제는 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체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한 바를 글로 표현한 것이 문학이기 때문이다. 타자는 주체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서, 주체를 주체로서 성립하게 하는 조건이다. 그런데 타자를 주체와 상당히 같은 존재, 곧 동일성으로 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존재, 곧 타자성¹⁾으로 보는 관점이 대립할 수 있다. 타자의 존재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후자이지만, 전자와의 변증법적 관계를 고려하여 주체와 타자의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학 일반이 그렇듯이 향가도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보여 준다. 대개 대상을 동일성으로 보는 화자의 관점에서 지어진 것이어서, 타자성의 관점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할 만한 작품은 없는 셈이다. <혜성가>에서 변방 군사 왜군으로 보고한 것을 화자는 건달과 성으로 판단하고, 일관이 혜성이라고 아뢰는 것을 화자는 길 쓸 별로 파악하고 있다. <처용가>에서는 화자가 잠자리의 네 가랑이 가운데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인가라고 묻고

1)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84-85면, 101면;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36-37면.

있다. 두 작품은 타자의 존재를 전면에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타자의 판단을 화자의 것으로 대체하거나 타자 자체를 배제하는 논리 위에 타자가 그려졌기 때문에 이 작품들에서 타자성을 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기서 살펴보려는 <우적가>도 <혜성가>와 <처용가>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체의 동일성에 흡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적가>는 시적 대상이 도적이라는 점, 곧 체제 외적 존재를 대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타자성의 문제를 내포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작품에 비해 타자의 존재성이 좀 더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우적가>는 향찰 몇 글자가 빠져 있어 해독하기가 힘들고 기존의 해독 결과 사이에 편차가 심하다. 이로 인해 작품론이 활발하게 펼쳐지지 못하였다.²⁾ 본고는 필자의 해독을 바탕으로 작품에 그려진 주체와 타자의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작품과 비교하기에 적합한 자료 하나를 먼저 검토하려고 한다. 『화랑세기』에는 비보와 유지의 결연 이야기가 짙막하게 나와 있다.³⁾ 여기서 유지는 도적이었다가 비보의 첩이 된 인물이다. 타자인 도적이 주체에게 감화, 포섭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적가>의 내용과 유사하다. 서사와 서정이라는 장르적 차이, 타자의 포용 논리의 차이 등을 비교함으로써 <우적가> 해석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2. 타자에 대한 세속의 논리 - 비보와 유지

2) 연구사는 강석근, 「우적가」, 『새로 읽는 향가문학』, 아세아문화사, 1998; 이연세, 「우적가」,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을 참조할 수 있고, 작품론으로는 박노준, 「우적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최성호, 「우적가」,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6; 유효석, 「우적가에 있어서 믿음과 상상의 가치」, 『성대문학』28, 성균관대, 1992; 황폐강, 「우적가 연구」, 『국문학논집』14, 단국대, 1994; 임국현, 「우적가, 낙원을 찾아가는 모험노래」, 『유남신석환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창원대출판부, 1997; 김혜진, 「우적가의 성격과 그 기능-도적의 행동변화를 중심으로」, 『태릉어문연구』8, 서울여대, 1999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작품을 보는 편차가 커서 쟁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3) 『화랑세기』의 진위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필자는 이 자료를 진본이 전승된 것으로 보는바, 이에 대한 논의는 신재홍, 『향가의 미학』, 집문당, 2006, 443-463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비보(秘寶)는 문노를 이어 제9세 풍월주에 오른 인물이다. 법흥왕의 손자이고 진흥왕의 사위로서 계보로는 진골정통에 속한다. 그는 설원과 동갑내기인데, 함께 노래를 배웠으나 그에게 미치지 못하였고 피리를 배웠어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문노의 문하에 들어가 검술을 배워 드디어 고제가 되어 문노를 힘껏 도왔다.⁴⁾

이러한 비보가 18세에 겪은 일화 하나가 나온다.

유오량은 공의 첩 유지(柳枝)가 낳았다. 유지는 검술을 잘하였는데, 떠돌아 다니며 난도를 많이 거느리고 요란을 피웠다. 조정에서 무사를 모아 그녀를 잡으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다. 공이 18세의 나이로 그 소굴로 가서 사로잡았다. 유지는 용모가 아름답고 뜻이 고상했는데 공의 고아한 표치를 보고 스스로 굴복했던 것이다. 공은 그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모두 풀어 주었는데, 유지 홀로 가지 않고 말했다. “다만 그대를 따라 죽기 원할 뿐 도망가서 달리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첩으로 삼은 것이다.⁵⁾

비보의 생년이 549년(진흥왕 10)이므로 이 일은 566년에 일어났다. 이때는 신라가 대가야를 정벌한 562년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이다. 여자 객인 유지가 떠돌아다니게 된 이유 및 그녀가 거느린 난도(亂徒)는,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대가야의 멸망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가야의 유민일 가능성이 크다. 조정에서 도적의 우두머리인 유지를 죽이려 들지 않고 생포하려고 한 것도 가야 유민을 포섭하려는 신라 조정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보가 첫 번째 부인을 병으로 잃고 얻은 두 번째 부인이 가야국 월화 공주의 딸 덕명 공주라는 점도 참조된다.⁶⁾ 비보의 스승 문노 역시 가야국 문화 공주의 아들이므로, 비보가 두 번째 부인을 선택하는 데에 문노

4) 『화랑세기』, 제9세 비보랑, 公與薛原公同年生 同學歌不及 學笛又不及 乃投文琴而學劍 遂爲高弟力輔.

5) 같은 곳, 柳五郎者 公妾柳枝生也 柳枝善劍術 放浪多畜亂徒作擾 朝廷募士擒之不得 公以十八之年 詣其窟捕之 蓋柳枝克美而志高 見公之高標而自伏者也 公惜其人皆釋之 柳枝獨不去曰 但願從君死 不願逃他生 遂以爲妾者也.

6) 같은 곳, 又娶眞興大王女德明公主 其母乃加耶國月華公主也.

의 권고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문노와 비보는 멸망한 대가야 출신의 인물들이 신라에 귀속한 후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18세의 비보는 도적의 소란을 평정하려는 조정의 일에 참여하여 유지를 사로잡아 공을 세웠다. 비보가 유지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용모와 고상한 뜻을 지닌 유지가 비보의 ‘고아한 표치[高標]’를 보고 스스로 굴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지는 일당이 모두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가지 않고 비보를 따라 죽기를 원한다면서 남았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비보의 첩이 되었다.

여기서 주체와 타자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계보상 진골정통에 속한 신라 최고위층 귀족이, 추정컨대 멸망한 대가야의 유민들을 이끌고 도적이 된 여자 검객을 사로잡고 또 첩으로 삼은 것이다. 즉, 주체인 귀족이 타자인 도적의 우두머리를 포용한 이야기인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인 이상 여기에는 주체와 타자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점이 개재되어 있다. 서술자는 주체와 타자의 같음에서 그 포용의 당위성을 서술하고 있다. 타자인 유지는 용모가 아름답고 뜻이 고상한 인물이요, 타자를 포용한 주체인 비보는 타자의 눈에 고아한 표치를 드러낸 인물인 것이다. 아름다운 용모, 고상한 뜻, 고아한 표치 등은 모두 인물의 귀족적 아름다움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덕목들이다.

신라 문화에서 아름다움의 가치는 상당히 중하게 여겨졌다. 『삼국유사』의 여러 곳에서 그러한 점을 알 수 있는 예들이 나온다.

사랑부의 서민 여자가 자태와 용모가 아름다우니, 당시 사람들이 도화랑이라고 불렀다. …… 왕이 폐위되어 봉한 지 2년 후 …… 7일 동안 머물렀는데, 늘 오색구름이 가옥을 덮고 향기가 실내에 가득 찼다. 7일 후 홀연 자취 없이 사라졌다. ; 수로의 자태와 용모는 당대에 뛰어나 깊은 산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신물에게 여러 번 붙들려갔다. ; 왕이 미녀로써 아내를 삼도록 하여 그의 뜻을 머무르게 하고자 했고 또 급간의 관직도 주었다. 그의 아내는 매우 아름다워 역신이 흠모해서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 집에 가서 남몰래 함께 잤다.⁷⁾

세 예화 모두, 비록 설화적으로 수식되어 있긴 하지만, 아름다움이 신물에게도 감동을 줄 만큼 신성하고 고귀하게 여겨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화랑세기』에도 아름다운 여자와 아름다운 남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 그 중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예를 들어 보겠다.

용모가 절묘하여, 풍만하고 도톰함은 옥진을 닮았고 밝고 명랑함은 벽화를 닮았고 이름답고 오묘함은 오도를 닮았으니, 온갖 꽃들의 신령을 모았고 세미인의 정수를 뽑아 놓았다고 이를 만하였다. ; 공이 말했다. “무엇이 아름다움 입니까?” 궁주가 말했다. “너와 같은 자가 아름답다. 얼굴은 반지르르한 옥 같고, 입술은 붉은 연지 같고, 눈에 아리따운 광채가 돌고, 말에 정근(情根)이 있는 자가 아름답지 않느냐.”⁸⁾

앞의 것은 미실의 아름다움을, 뒤의 것은 보종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이다. 미실은 풍만하고 도톰함, 밝고 명랑함, 이름답고 오묘함 등 세 가지의 아름다움을 지닌 여자이다. 차례대로 육체적 특징, 표정과 말씨, 인상과 분위기를 뜻하는 듯하다. 미실의 막내아들인 보종의 아름다움은 옥같이 반지르르한 얼굴, 붉은 연지 같은 입술, 아리따운 광채가 도는 눈, 정을 끄는 근기가 있는 말 등 네 가지로 요약되었다. 미실의 아름다움으로 지적된 점들과 비슷한 특징이 거론되었는데, 요컨대는 그 사람의 육체성과 태도의 측면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여자와 남자에 공히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인용문 뒤에는 보종의 반론이 이어진다. 그는 “정을 끄는 근기는 여러 갈래이고, 아리따운 빛은 속이기 쉽고, 붉은 연지나 옥같이 반

7) 『삼국유사』 1권, 기이 도화녀 비형랑, 沙梁部之庶女 姿容艷美 時號桃花娘……王見廢而崩後二年……留御七日 常有五色雲覆屋 香氣滿室 七日後忽然無蹤; 수로부인, 水路姿容絕代 每經過深山大澤 屢被神物掠攬; 처용당 망해사, 王以美女妻之 欲留其意 又賜級干職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爲人 夜至其家 竊與之宿.

8) 『화랑세기』, 제11세 「하중」, 容兒絕妙 豐厚似玉珍 亮明似碧花 美妙似吾道 可謂鍾百花之神萃 三美之精; 제16세 「보종」, 公曰 何之爲美乎 宮主曰 如汝者 美也 面若玉膏 脣若赤脂 眼有嬌彩 言有情根者 不亦可乎.

질거리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보배가 아닙니다.”라고 말한다.⁹⁾ 이는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이다. 보편적으로 그렇듯이, 신라 시대에도 외면적 아름다움과 내면적 아름다움이 함께 긍정되었음을 보여 준다.

유지가 비보의 고아한 표치에 반했던 것은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신라인의 전반적인 성향에 따른 것이다. 아름다운 여자인 그녀는 자신의 미감에 딱 맞는 비보의 아름다움에 빠져 들었다. 비보가 유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에서 보듯이, 비보 역시 유지의 아름다움에 반하였다. 이 이야기의 서술자까지도 유지의 아름다움과 비보의 아름다움을 동질적인 성격으로 보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주체와 타자가 문화적 동질성, 곧 같음의 논리로 상호 흡수되고 동화되는 양상이다. 사회 질서의 수혜자·유지자인 귀족과 소외자·도전자인 도적 사이의 긴장 관계는 아름다움에 대한 숭배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풀어지고 마침내 주체가 타자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화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신라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골품 제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 아래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던 신라 시대에 신분적 차별에 따른 사회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문화적 장치들이 있었을 것이다. 비보와 유지의 이야기는 아름다움에 대한 숭배라는 신라 문화의 한 특징에 의해 주체와 타자가 화합할 수 있었던 예이다. 사회 문화적으로 같음의 논리로서 주체와 타자 사이의 다름을 넘어섰던 것이다.

3. 타자에 대한 초월의 논리 - <우적가>

비보가 여자 도적 유지를 첩으로 받아들인 일이 566년에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220여 년 후인 원성왕대(785-798)에 영재(永才)가 도적 60여 인을 감화시켜 자신의 문도로 받아들인 일이 일어났다. 그 사이 신라는 삼한 통합의 위업을 달성하였고, 성덕왕·경덕왕대의 흥성기를 지나 이제 하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시대가 많이 떨어진 관계로 도적의 성격이 유지의 경우와는

9) 같은 곳, 情根多岐 嬌彩易許 赤脂玉膏 非護身之寶也.

상당히 달랐을 터인데, 도적에 대한 논자들의 견해차가 심하다.¹⁰⁾

필자는 선덕왕에서 경순왕까지의 신라 하대 155년에 대해 진골 귀족의 반란이 계속되어 신라가 멸망을 향해 나아갔다는 식의 설명을 각 왕대마다 등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신라 하대가 상대나 중대에 비해 반란이 많고 왕권이 자주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기에도 원성왕, 문성왕, 경문왕, 헌강왕대 등 안정기도 있었고, 155년의 세월 동안 정권 다툼이라는 표층의 밑으로는 신라인의 일상생활이 지속되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랑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일들은 어느 시대나 행해져 왔던 것이다. 이 점을 인식하지 않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권력 투쟁의 사건만을 신라 하대 역사의 전부인 양 기술하는 것은 역사의 실상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우적가>의 배경인 원성왕대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14년의 재위 기간 동안 자연재해나 기근 등이 많았던 것으로 나오나, 이는 신라 시대 어느 왕대나 그만큼의 기록은 찾을 수 있는 정도이다. 『삼국사기』의 편자 김부식이 신라사의 지속성과 역동성을 폄하하고 하필이면 그러한 면만을 추려서 기록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삼국사기』의 기록으로도 원성왕대는 한 번의 반란이 있었을 뿐 대체로 안정기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 왕의 즉위를 둘러싼 이야기, 호국룡을 구출한 이야기, 못 사람을 홀린 묘정의 이야기, 만파식적을 전수받은 이야기, 그리고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 등이 원성왕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원성왕대가 신라 중대의 진흥왕, 진평왕, 문무왕, 신문왕대 정도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부회될 수 있었던 시대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원성왕대를 배경으로 한 <우적가>에는 도적 60여 인이 나오고 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도적의 존재로 인해 원성왕대가 혼란한 시대

10) 최성호는 ‘도둑 아닌 도둑, 도둑답지 않은 도둑’(최성호, 앞의 논문, 381면)으로, 박노준은 ‘화랑단의 잔비(殘匪)’ 혹은 ‘반체제 세력’(박노준, 앞의 책, 280-281면)으로, 이용재는 ‘주원(周元) 계의 일파’(이용재, 우적가 설화의 연구, 『평사민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1990, 304-305면)로, 황폐강은 문자 그대로 ‘도둑, 즉 반사회적 범죄 집단’(황폐강, 앞의 논문, 88면)으로 보았다.

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보다는 일정 수준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도적들이라고 보는 편이 온당하리라 본다. 안정기든 혼란기든 개인적, 집단적 사정에 의해 서민 혹은 귀족 중 일부가 도적이 될 여지는 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성왕 4년(788)의 기사에 주목할 수 있다.

가을에 나라의 서쪽 지역이 가물었고 누리가 생겼으며 도적이 많아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안무하였다.¹¹⁾

가뭄, 누리 발생과 도적이 많아진 것이 앞뒤로 이어져 기술되었다. 도적이 많아진 것이 가뭄, 누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유랑민의 확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본 기사자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832년의 ‘흉년이 들어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났다.’¹²⁾라는 기사와 유사한 인식이다.

물론, 일군의 도적이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모여 신라 조정에 반역하는 세력이 된 경우도 있다.

봄 정월 현창의 아들 범문이 고달산 도적 수신 등 100여 인과 함께 반란을 꾀하였다. ; 국내의 여러 주군에서 공물과 조세를 보내오지 않아서 창고가 비었고 비용이 궁핍해지니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하였다. 이러한 연유가 있는 곳에서 도적이 봉기하였다. 이에 원중,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삼아 반역하였다. ; 도적이 나라의 서남 지역에서 일어났다. 바지를 붉은 색으로 하여 스스로를 특이하게 보였는데, 사람들이 적고적이라 하였다.¹³⁾

앞의 예는 김헌창의 반란(822)의 여파에 산적들이 반적에 가담한 것이고, 뒤의 두 예는 진성왕대(887-897)에 조정의 가렴주구를 못 이겨 도적들이 봉기한 것이다. 세 경우 모두 뚜렷한 목적의식하에 도적이 일어난 예인데, 기

11) 『삼국사기』, 신라본기, 원성왕 4년, 秋 國西旱蝗 多盜賊 王發使安撫之.

12) 위의 책, 흥덕왕 7년, 八月 飢荒 盜賊遍起.

13) 위의 책, 「헌덕왕」 17년, 春正月 憲昌子梵文 與高達山賊壽神等百餘人 同謀叛; 진성왕 3년, 國內諸州郡 不輸貢賦 府庫虛竭 國用窮乏 王發使督促 由是所在 盜賊蜂起 於是 元宗哀奴等 據沙伐州叛; 진성왕 10년, 賊起國西南 赤其袴以自異 人謂之赤袴賊.

사자는 도적 봉기의 원인과 양상을 분명히 기술해 놓았다.

이에 비해, 앞서 본 원성왕대 도적의 기사는 자연재해와 연관되어 기술되었을 따름이다. 따라서 <우적가>의 배경기사에 나오는 원성왕대의 도적 60여 인도 어떤 목적의식 하에 반란 세력을 이룬 도적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유민이 생계를 위해 도적질을 하게 된 경우로 볼 것이다.

이 도적들 중에서 향가를 잘 하는 영재를 알아본 자가 있었던바, 아마도 도적의 우두머리 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는 향가가 당대에 대중에게 널리 향유된 국민문학¹⁴⁾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도적 중 우두머리 급은 지식층으로서 영재의 문명(文名)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영재는 도적의 요청에 따라 향가를 지었고, 작품에 담긴 뜻을 이해한 도적들이 감화를 받게 되었다.¹⁵⁾ 이렇듯 <우적가>는 도적을 타자로 둔 주체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서정시이다.

저의 모습	제 마음의
즈시 모습기려든	모습 구하려거든
히 멀오 숨은 지나출 알고	해 멀리 숨은 지나침을 알고
열든 더피 가고소다.	이제는 숲에서 떠나갈 것이다.
다몬 외온은 허른 님,	다만 잘못된 것은, 해치는 님,
즈비 업시 드러도 도를 郎야	채비 없이 들어도 돌아갈 郎(郎)이
이 잠갓사 디나온?	이 병장기야 지나치련?
도홀 이사야 드료드니.	좋을 것이라야 들이다니.
아야, 오지기 나—잇 恨은	아아, 오직 나—의 恨은
아스란 알히 스집 아모니다.	아스라한 조용한 시골집 아무오니
	다. ¹⁶⁾

14)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1, 38-40면.
 15) 『삼국유사』 5권, 피은, 영재우적, 賦感其意.
 16)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313-314면. 양주동, 『중정 고가연구』, 일조각, 1965, 638-672면;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44-156면 등 <우적가>의 기존 해독에 대한 논의는 위의 책, 282-313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기존 해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제1구(제1~4행)를 화자가 지금 숲 속을 가고 있다는 말로 풀이한 것에 비해 화자가 도적들에게 마음의 참모습을 알고 숲에서 떠나라고 훈계하는 말로 본 점이다. 이러한 입론은 제2, 3구의

승려 영재가 지리산에 은둔하러 가는 도중에 대현령에서 도적을 만나 지은 것이므로, 작품의 바탕에는 여행의 주제가 구조화되어 있다. 제10행의 ‘시골집’이 여행의 목적지, 제4행의 ‘숲’이 여행 도중에 지나게 된 장소로서, 애초에 거처한 곳에서 출발하여 ‘숲’을 거쳐 ‘시골집’으로 옮겨감이 작품의 근간을 이룬다.

여행의 구조 위에서 시상은 주체의 관심이 타자에게 향했다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주체와 타자를 지시하는 시어로 본다면, 제1행의 ‘저’에서 제5행의 ‘님’과 제6행의 ‘랑’을 거쳐 제9행의 ‘나’로 나아간다. 시적 화자는 청자를 향해, 먼저 주체와 타자가 포함된 ‘저’에 대해 말하고, 다음으로 타자인 ‘님’과 주체인 ‘랑’을 비교하여 말하며, 끝으로 주체인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제1구(제1~4행)는 화자가 여행 도중 갑자기 만난 도적에게 하는 말이다. 제1, 2행은 ‘제 마음의 / 모습 구하려거든’이라는 가정인데, 이는 화자가 도적과 자신을 같은 존재자로 전제한 것이다. 주체는 타자를 동일시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참된 ‘모습’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여행 도중 겪게 된 불의의 사태에 처하여 화자가 애초에 지녔던 자유분방한 성품과 수도자로서의 자세를 바탕으로 발화한 것이다. 마음의 문제에 대해 사색하고 그 참모습을 구하기 위해 수도에 정진했던 화자의 경력이 훈계의 말 속에 담겨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타자에게 던지는 훈계인 동시에 주체가 여행자가 되어 길을 떠난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같음을 전제로 하여 발화한 다음, 제3, 4행에서는 다름의 측면을 부각하여 말하였다. 제3행에서 타자는 ‘해 멀리 숨은 지나침’을 행하였다고 했다. 광명을 피해 어둠 속에서 불의한 행동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주체와 타자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주체와 타자의 다름을 확인한 다음, 제3행 끝의 ‘알고’와 제4행의 ‘이제는 숲에서 떠나갈 것이다.’라고 말한다. 타자에 대한 주체의 엄중한 경고, 강력한 훈계인 것이다.

해독에서도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기존에 풀이된 작품 내용과는 크게 다르고 배경기사의 상황에 좀 더 근접하는 방향으로 해독이 이루어졌다.

도적의 소굴인 ‘숲’은 ‘해 멀리 숨은’ 어둠의 장소이다. 잘못을 알았다면 그곳에서 벗어나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주체가 타자에게 던진 훈계인 동시에 주체의 여행길의 의의이기도 하다. 어둠을 거쳐 광명에 이르는 길은 곧 주체가 지금 가고 있는 수도의 길이기도 한 것이다. 주체와 타자는 이승의 존재자로서 같지만, 타자는 ‘지나친’ 행동을 하였으므로 주체와 다르다. 그러나 광명을 찾아 가는 길에서 주체와 타자는 다시 같은 존재가 된다.

제2구(제5~8행)는 제1구의 같음의 논리에서 벗어나 주체와 타자의 다름을 강조하며 주체를 심화하고 있다. 제1행이 가정에서 출발한 것처럼, 제5행은 ‘다만’이라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다만’은 제1구의 주체의 훈계를 타자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남는 문제, 곧 주체와 타자의 다름에 대해 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제5행에서 ‘다만’에 이어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도적들이 ‘잘못되’었다고 꾸짖는다. ‘지나침’이 일반적, 관습적 잘못이라면, ‘잘못되’었다는 것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잘못을 뜻한다. 지금 자기를 해치려는 도적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타자가 잘못되었기에 주체는 그 잘못을 일깨우며 자신을 타자에 대비시키게 된다. 곧, ‘님’과 ‘랑’과의 다름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제5행 끝에서 타자를 ‘님’으로, 제6행에서 주체를 ‘랑’으로 지칭한 것은 주체와 타자를 객관화한 말이다. ‘님’은 사람을 ‘해치’고 ‘잘못된’ 데 반해 ‘랑’은 ‘채비 없이 들여도 돌아갈’ 존재이다. 현세에나 소용될 재물을 빼앗으려고 일시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타자에 대해 내세를 위해 무욕행을 실천하는 주체가 극명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단정을 조금 완화하는 말이 또한 ‘님’이다. 단죄하는 말에 이어 나온 존칭의 ‘님’은 타자의 존재성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준엄하게 꾸짖은 끝에 ‘님’이라는 존칭을 써서 상대의 감정을 조금 풀어 준 것은 화자의 골계적 품성¹⁷⁾에 기인한다.

제7, 8행은 주체와 타자의 다름을 현 상황에 대응시켜 놓았다. 타자에게

17) 같은 곳, 性滑稽 不累於物.

‘병장기’는 사람을 위협하는 도구이지만, 주체에게는 그저 순순히 받아들일 사물일 따름이다. 무욕의 수도자에게 병장기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위협적인 의미를 갖지도 못한다. 타자가 병장기를 휘둘러 현세에나 소용될 재물을 빼앗으려 하자, 주체는 그것을 순순히 수용하고 만다.

제5행에서 타자를 ‘님’이라고 지칭한 화자의 태도가 제7, 8행에서 ‘지나치런?’과 ‘들이다니.’의 자문자답 형태로 확장되었다. 의연하면서 깔보는 듯한 어조로써 상대의 감정을 완화시키고 여유 있는 웃음을 자아내어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듯 주체는 ‘채비 없이 들어도 돌아갈 승랑’이라고 하여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타자를 병장기로 위협하는 존재라고 하여 주체와 다름을 분명히 하였다. 주체는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떤 시련이나 위협에 닥쳐도 모든 것을 툭툭 털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도 여행의 주체는 지속된다. 여행자인 주체가 가는 길은 지리산 속 ‘시골집’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돌아갈’ 곳, 즉 극락세계를 상징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화자의 실제 여행은 애초의 거처에서 출발하여 대현령 숲을 거쳐 지리산 시골집에 이르는 길이지만, 이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시골집으로부터 나아갈 극락세계이다.

제3구(제9·10행)는 타자와의 다름에 따른 주체의 주체다움을 드러내었다. 주체로서 ‘나’를 전면에 내세우며 발화하는 것이다. 우선, 제2구의 처음에 ‘다만’이라는 조건이 온 것에서 더 나아가, 감탄사를 거친 제3구 첫머리는 ‘오직’이라는 단정으로 시작된다. 타자에 대한 같음에서 다름으로의 이행은 결국 주체의 주체다움을 유일한 명제로 규정하려는 의도이다. 타자와의 다름에서 나아가 주체는 주체로서 존재하기에, 주체를 ‘오직 나’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주체의 ‘한’을 말하였다는 점에서 제2구로부터 비약이 있다. 제2구처럼 타자와는 다른 주체의 생각에 따라 병장기를 수용하게 되면 주체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를 가정한 것이 제2구와 제3구 사이에 개재한 비약의 토대이다. 제9행에서 발한 ‘나’의 ‘한’은 죽게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나온 말이다.

이 ‘한’은 제1행에 나온 ‘마음’과 대비된다. ‘마음’을 찾기 위한 여행길이었는데, 그것이 좌절된 다음에는 ‘마음’의 부정적 결과물인 ‘한’이 남게 되었다. 이는 타자와 다른 주체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타자가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으로서의 ‘한’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주체가 ‘한’을 말함으로써 타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한’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화자는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애초에 지녔던 소망을 더욱 뚜렷이 되새겨 본다. ‘한’은 죽음을 가정하여 나온 말인 동시에 애초의 삶의 의지를 상기시키는 말이다. 그리하여 작품을 마무리 하는 제10행에서 ‘아스라한 조용한 시골집’이 제시되었다.

한 이전에 소망이 담긴 이 ‘시골집’은 실제의 여행과 관념상의 여행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곳에 가서 수도함으로써 극락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시골집’을 수식하는 ‘아스라한 조용한’은 제3행 ‘멀리 숨은’과 연결되는데, 두 수식어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은둔의 이미지가 같고 거리적으로 멀다는 뜻은 같지만, ‘멀리 숨은’은 타자의 행동을 꾸짖는 말이고 ‘아스라한 조용한’은 주체의 소망을 담은 말이다. 다시 말해, 도적의 숨음에 대한 수도자의 숨음이 대비되어 있다.

이렇듯 제3구에서 발한 화자의 한탄은 여행 도중의 사태로 인해 나온 것이다. 그 속에는 실제 여행의 끝에서 관념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제2구에서 말한 타자와의 다름에서 더 나아가 주체의 주체다움을 표현하였다.

<우적가>는 길을 가던 주체가 갑자기 만난 타자에게 발언한 내용이다. 주체가 타자를 의식하여 주체와 타자의 같으면서 다름을 전제로 혼계하고, 현장의 구체적 행동을 두고 타자의 잘못을 꾸짖으며 다름을 명확히 한 다음, 결국 주체의 주체다움을 드러내었다. 그러면서 주체의 극락왕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수도자로서의 정진의 자세를 보여 주고, 그에 대비하여 타자의 현세적 욕망이 지닌 허망함과 위협의 수단이 지닌 무의미함을 폭로하였다.

이러한 주체와 타자의 문제는 화자가 여행 중에 겪은 사건의 와중에 그려졌다. <우적가>는 인간의 참모습을 찾는다는 여행의 동기,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겪은 여행의 도중, 수도에 정진할 곳인 여행의 실제 목적지,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여 도달할 여행의 최종 목적지까지, 실제의 여행과 관념상의 여행이 결합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 여행 같은 인생길을 가는 주체가 타자와 만나서 맺게 되는 관계의 역동적인 의미를 담아내었다. 요컨대, <우적가>는 여행의 의미 구조를 바탕으로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4. 결 론

본고는 <우적가>의 작품 구조와 시상의 전개를 분석하여 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형상화된 양상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승려인 주체가 도적인 타자를 훈계하고 포용하는 데 어떤 논리가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의하였는데, 마침 『화랑세기』에 비보와 유지의 이야기가 있어서 비교할 만하였다.

신라의 최고위층 귀족인 비보가 대가야의 유민을 이끌고 도적이 된 여자 검객 유지를 첩으로 받아들인 이야기는 신라 사회가 체제 외적 존재를 포용한 사례이다. 엄격한 신분 제도의 골품제를 지켜 나간 신라는 신분 간의 갈등이나 체제에 대한 도전을 제재하거나 포용하는 논리와 방법을 지녔을 것이다. 그 중 고아한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신라 문화의 특성이 비보가 유지를 포용한 근거가 되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아름다운 용모와 자태는 신라 사회가 받들어 모시는 대상의 기본 조건이 되었다. 이는 신라 사회에서 타자를 포용하는 세속적 논리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비해 <우적가>는 타자를 포용하는 논리가 구체적인 시어들의 관계 속에 들어 있다. 수도자인 화자는 도적인 타자를 인간 보편의 동일성의 측면에서 훈계하고, 타자와 자신과의 차이를 부각하며, 자신의 주체다움을 드러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타자를 포용하게 되었다. 이는 마음의 참모습을 찾아 나선 여행자인 화자가 타자를 그 길에 동행시킨 것이기도 하다. 그 길은 애초의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도적을 만난 숲을 거쳐 지리산의 수도처에

이르고, 그곳에서 다시 극락세계로 나아간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초월의 논리로써 타자를 구도의 길로 끌어들이었던 것이다.

비보와 유지의 이야기는 서술자나 등장인물 모두 아름다움에 대해 긍정 하는 데에, <우적가>는 시적 화자가 현세의 것들은 포기하고 일념으로 극락세계를 향하는 데에 바탕을 둔 작품이다. 두 자료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세속의 논리에, 서정시가 초월의 논리에 기초하여 타자를 포용했다고 하겠으나, 당대에는 그 두 논리가 반대 방향에서 이끄는 자장 안에서 여러 가지 포용의 논리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에, 아주 상식적인 추론이 되겠지만, 향가를 포함한 신라 문화는 대립과 갈등의 양상과 함께 포용과 화합의 양상을 지녔으리라 생각된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1 감교원문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삼국유사』(『한국불교전서』6, 동국대출판부, 1982)
『화랑세기』(필자가 복사해 지닌 모본 및 발췌본)
- 강석근, 「우적가」, 『새로 읽는 향가문학』, 아세아문화사, 1998.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36-37면.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44-156면.
김혜진, 「우적가의 성격과 그 기능-도적의 행동변화를 중심으로」, 『태릉어문연구』
8, 서울여대, 1999.
박노준, 「우적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282-314면.
신재홍, 『향가의 미학』, 집문당, 2006, 443-463면.
양주동,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1965, 638-672면.
엄국현, 「우적가, 낙원을 찾아가는 모험노래」, 『유남신석환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창원대출판부, 1997.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84-85면, 101
면.
유효석, 「우적가에 있어서 믿음과 상상의 가치」, 『성대문학』28, 성균관대, 1992.
이연세, 「우적가」,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이용재, 「우적가 설화의 연구」, 『평사민제선생 화갑기념논문집』, 1990, 304-305면.
이종욱 역주해, 『화랑세기』, 소나무, 1999,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1, 38-40면.
최성호, 「우적가」,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6.
황패강, 「우적가 연구」, 『국문학논집』14, 단국대, 1994.

The Subject and the Others in Ujeokga

Shin, Jae-Hong

In this study, the aspects of relation of the subject and the others were analyzed through an investigation of the structure and flow of thoughts in the poem of Ujeokga. Also we attended to the logic the subject, buddhist monk, taught and accepted the others, thieves. In this view, the story of Bibo and Yuji in Hwarangsegi is available for comparison with Ujeokga.

Bibo, the first class nobleman took Yuji, the swordswoman leader of the thieves who were the common people of Gaya dynasty, as a concubine. This story is an example of acceptance of outsiders in Shilla society. Shilla have had the logics and methods to compromise social conflicts and accept trouble-makers or outsiders. In Bibo and Yuji's case, the cultural feature of Shilla people's admiring the graceful beauty of man and woman offers the basis of acceptance. This shows one of many secular logics of acceptance of the others.

In comparison, in Ujeokga, the logic of acceptance of the others took place in the network of concrete poetic words. The subject, monk, admonishes the others, thieves, in respect of universal human identity, and emphasiz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s and manifests the subjectivity of himself. In this way the subject finally accepts the others.

This progression advanced within the subject, traveler, searching for one's true mind, led the others to go together. The road which the subject and the others take together extends to the buddhist paradise through the forest and a religious cabin. The subject takes the others to seek after truth together with the transcendental logic of acceptance of the others.

Bibo and Yuji's story has the viewpoint of a narrator and characters' admiration for beauty, and Ujeokga has that of the subject's holy mind for paradise.

Concluding with these two texts, the story based on the secular logic and the lyric based on the transcendental logic of acceptance of the others. But, in the Shilla period, the two logics were positioned in the ends of a continuous line and there were many logics of acceptance of the others between the two extreme points. So we know that the Shilla culture showed the aspects of acceptance and harmony along with the opposition and conflict.

Key words: Ujeokga, Bibo and Yuji's story, the subject, the others, logic of acceptance of the others, secular logic, transcendental logic

접수일자 : 2008. 4. 10
심사기간 : 2008. 4. 10~2008. 5. 20
게재결정 : 2008. 5. 20